

## 제9강 폴 비릴리오의 질주학과 페터 슬로터다이크 논쟁

### 제9강 1교시

#### ◆ 폴 비릴리오의 질주학

##### ▲마리네티의 선언문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보론에서 인용하는 이탈리아 미래파 마리네티의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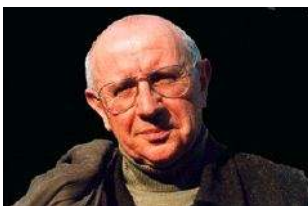
'25년 전부터 우리들 미래파는 전쟁은 비예술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해왔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방독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화성기, 화염방사기와 소형탱크 등을 빌어서 버림을 당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굳건히 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오래 꿈꾸어오던 인간 육체의 금속화 과정의 시대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꽃피는 초원을 불꽃 튀기는 기관총의 열대 식물로써 더 한층 다채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총탄의 포화와 대포의 폭음, 사격 뒤에 오는 휴식, 향기와 썩는 냄새 등을 합하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대형탱크, 기하학적 비행편대, 불타고 있는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나선행의 연기와 같은 새로운 건축구조와 그 밖의 다른 건축구조를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미래주의 시인들과 예술가들이여, 전쟁의 미학이 갖는 이러한 근본원리를 기억하라! 그리하여 새로운 시, 새로운 조형예술을 위한 그대들의 투쟁이 이들 전쟁 미학의 근본원리에 의해서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인간들의 감각, 미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19세기까지는 목가적인 풍경에서 만족감을 느꼈다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옛날 자연적인 속도에서 유기적인 쾌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기계적인 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속도에도 역시 답답함을 느낀다. 재료도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이 주가 되고 유기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무기물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변화된 시각의 욕구를 가장 화끈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다.

##### ▲폴 비릴리오의 드로몰로지dromologie

**질주학**→우리는 그동안 미디어를 원본과 복제의 관계 문제에서 보았는데 비릴리오는 **속도**라는 패러미터를 가지고 미디어에 접근한다.

##### ▶ 참고자료



Paul Virilio

우리 시대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들 중의 한 사람인 저자는 철학자, 도시계획전문가, 문화이론가, 영화비평가, 전시큐레이터, 군사역사가, 평화전략가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저자는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브라크, 마티스와 함께 작업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하는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1969년에 저자는 파리 건축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었으며, 현재 갈릴레 출판사의 「비평의 공간」 총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와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미디어를 탐구하는, 특히 현대생활의 지배적인 요소로서의 속도, 공간에 관한 이론들을 연구하는 영향력 있는 책들을 출판했다.

주요 저서로는 『속도와 정치학』(1977), 『사라짐의 미학』(1980), 『전쟁과 영화』(1984), 『영상기계』(1988), 『사막의 스크린』(1991), 『동력 예술』(1993), 『자유속의 속도』(1995), 『궁극적인 결과』(1996), 『건축의 원리』(1996), 『침묵의 방식』(2000), 『사이버 세계, 최악의 정치학』(2001), 『일어나는 것』(2001) 등이 있다.

#### ▲ 공성전과 방성전

고대에 전쟁이란 곧 성(城)을 함락하거나 방어하는 것이었다. '트로이 목마'의 전설은 당시 전쟁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상징한다. 카르타고와 예루살렘 등 고대 도시의 운명은 성곽을 돌파당할 때 결정되었다.

→ 이는 중세에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차이가 있다면, 고대에는 성곽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거주의 공간이었다면, 중세의 성곽은 군사적 요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 도성이든 산성이든, 과거의 전쟁은 성의 함락, 혹은 성의 방어와 더불어 끝났다. 그때만 해도 전쟁은 철저히 '공간'의 점령으로 이해됐던 것이다.

기동전은 물론 고대에도 있었다. 마차가 끄는 전차부대는 고대 전쟁터에서도 승리의 보장이었다. 중세 유럽을 공포 속에 몰아넣은 칭기즈칸의 병사들이 서양 기사들보다 더 잘 무장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한 속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웃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종종 몽골 기병대보다 늦게 도착하곤 했다.

하지만 공성전의 시대도 지나간다. 포화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고립된 공간에 스스로 갇히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전쟁은 점점 더 기동전으로 성격을 바뀌기 시작한다.

→ 전쟁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은 손자일 것이다. 손자의 생각은 훗날 '전력(戰力)=병력×속도'라는 나폴레옹의 전쟁 개념으로 이어진다.

#### ▲ 전격전과 총력전

하지만 속도가 전쟁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 전만 해도 전쟁의 속도는 보병의 걸음걸이요, 빨라 봤자 기병의 이동 속도였다. 아직까지도 속도는 자

연적 한계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 하지만 1차대전 이후 전쟁은 인마의 근육이라는 한계를 넘어 기계의 속도에 도달한다. 병력은 기차로 수송되고, 정찰은 항공기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전선'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묶여 있었다.**

예)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생각해보라. 소설의 배경이 되는 참호전의 공간적 교착상태는 새로 모습을 드러낸 기동력에 의해 깨진다. 영국의 전차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독일군의 참호를 무력화해버린 것이다.

전선은 돌파되었다. 독일은 항복한다. 이 찬란한 승리에 도취한 프랑스는 종전 후 독일군의 재침을 막는답시고 이른바 '**마지노선**'을 구축한다. 여전히 참호전의 기억에, 말하자면 전쟁의 공간적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 하지만 1차대전에서 전차를 목격한 독일군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 개념을 창출했다. 전차와 항공기로 강력한 방어선을 우회함으로써 마지노선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번개처럼 빠른 전쟁**', 즉 '**전격전Blitzkrieg**'이다.

**전격전은 전쟁의 개념을 공간적인 것에서 시간적인 것으로 바꿔놓았다.** 게다가 전선 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폭격기는 전후방의 공간적 구별마저 지워버렸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공간을 지배한다. 권력은 이제 속도에서 나온다.

언젠가 독일 TV에서 본 한 노인의 말이 기억난다. 2차대전 때 여러 전선을 전진했던 그는 '다른 나라 군대와 달리 미군과 싸울 때는 인간이 아니라 물자와 싸우는 느낌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이미 1차 대전부터 전쟁은 전방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 없이 모두 동원되는 이른바 '**총력전**'이었다.

#### ▲ 게릴라전

그렇다면 시간을 빼앗기고, 권력도 빼앗긴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공간과 시간에서 사라져버리면 된다. 그것이 바로 '**게릴라전**'이다.

⇒ 게릴라전은 시간과 공간을 빼앗긴 자들의 군사적 플래시 몹이다. 일찍이 스페인의 인민들이 나폴레옹에게 '영토 없는 저항'을 한 데서 게릴라라는 말이 나왔다. 베트남의 인민들은 땅속으로 사라져 '신체 없는 저항'을 했다. 손자는 자기가 원할 때 집결해 원할 때 흩어질 수 있는 군대가 가장 이상적인 군대라고 말했다.

◆ 페터 슬로터다이크 논쟁

▲ 핵전쟁의 위기

오늘날 전쟁은 거의 전기적 속도에 도달했다. 소련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 경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 허용된 시간은 단 8분이라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늘 핵 가방 지참한 수행원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케네디가 쿠바의 핵 기지를 묵과하지 못했던 것도, 대비할 시간이 8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전쟁은 속도의 영점(零點)에 도달한다.

전쟁이 공간적이었을 때의 위기상황은 '포위상태'였다. **전쟁이 시간적인 것으로 변하자 '비상사태'가 위기상황이 되었다.** 핵 감축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탄두의 수를 줄이는 게 아니다. 아무리 탄두의 수를 줄여도 지구를 절멸시킬 만큼의 탄두는 남기 때문이다.

⇒ 따라서 비릴리오는 상대의 의도를 신속히 확인할 '**핫라인**' 개설이야말로 핵감축 협상의 요체라고 본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 앞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게 핵미사일인지 재래식 미사일인지, 의도적 공격인지 우발적 실수인지를 신속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 데 허용된 시간이 단 몇 분이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 판단을 아예 컴퓨터에 맡겨버리면 어떨까?

→ 그 경우 우리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기계의 반란을 우려해야 한다. 영화에서 기계들은 인간들에게 서로 핵 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인간 없는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

▲ 인류 역사의 세 번의 혁명

폴 비릴리오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에는 세 번의 혁명이 있었다.

1) 하나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수송transportation수단의 혁명**이다. 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유럽의 어느 유명한 문인은 '이제 유럽에서 공간은 사라졌다'고 단언했다.

2) 두 번째는 **통신communication수단의 혁명**이다. 지구 건너편의 사건을 실황으로 중계받고, 클릭 한 번에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시대에 이르면, 시간마저 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날 속도의 혁명은 광속에 도달했다.

3) 빛보다 빠를 수는 없기에, 비릴리오는 제3의 혁명은 속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다음은 바로 '**이식transplantation혁명**'의 시대라는 것이다.

⇒ 이탈리아 미래파들이 꿈꾸던 '인간 신체의 금속화'는 전자 센서와 금속성 무기로 무장한 전투 헬기의 조종사 속에서 실현되었다. 나아가 BT(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정복을 시작했다.

#### ▲ 페터 슬로터다이크 논쟁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칼스루헤 조형대학의 총장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 철학자는 『인간농장을 위한 규칙』이라는 책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의 개선에 관한 생각을 암시한 바 있다.

#### ▶ 참고자료



슬로터다이크는 배아복제를 비롯한 유전공학의 기술적 성취를 철학적 사유의 반석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유럽의 인문학적 논쟁의 진앙지 노릇을 하고 있다. 니체와 하이데거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하버마스와 대립하면서 독일 철학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나찌즘과 잇닿은 퀘변론자라는 악평도 있다.

슬로터다이크는 '전통적인 휴머니즘'의 기획이 실패했다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플라톤 이래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인간들을 길들이려고 했으나, 교양으로 인간성을 개조하는 것은 오늘날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간들은 날로 흉악해져만 가고, 세상 어디를 가도 '교육의 실패'를 애기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교육에 매달리느니, 차라리 '기술'을 동원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장기적 발전이 또한 종적 특성들의 유전학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미래의 인간공학은 명백한 형질 설계로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인류가 종 전체에 걸쳐 탄생 운명론에서 선택적 탄생 및 탄생 이전의 선택으로 방향 전환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 슬로터다이크의 이 언급이 알려지자, 독일 사회 전체가 격렬한 논쟁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말았다. 언론에서는 이를 '차라투스트라 기획'이라 부르며, '이는 나치 우생학의 생명공학 버전이나 다름없다'고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좋은 종자를 얻는답시고 유대인과 집시를 숨아내고, 정신박약아들에게 독주사를 놓았던 나치 인종주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회이니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슬로터다이크는 언론이 자신의 논지를 곡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그의 말을 보면 모든 문장에 물음표가 붙어 있다. 자신은 그저 물음을 제기했을 뿐인데, '신문기자들이 이 의문문을 규정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슬로터다이크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까?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의문문을 가

장한 사실상의 규정문이라고 본다.

#### ▲ 슬로터다이크 논쟁에 관한 미국의 반응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발상을 아예 입에서 꺼내는 것조차 못하게 막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로 충만한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사정이 다른 모양이다. 슬로터다이크가 인용하는 어느 미국의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유전자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현생 인류보다 더 우수한 종자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유혹에 기꺼이 몸을 맡길 것이다.' 엄청난 발언이나, 이 말 때문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 ▲ 유전자 조작에 관한 논쟁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보다 잘생기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나아가 우리보다 인간성도 좋은 인류를 만들어낸다는 생각. 만약 이 발상이 성공한다면, 언젠가 사회는 현생인류보다 우수한 '초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과거에 속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놀리고, 우리의 동물성을 경멸하고, 우리의 못생긴 외모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마치 현생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을 비웃듯이 말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의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데 흔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슬로터다이크가 말하는 '선택적 탄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전공학을 통한 인간의 형질 개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게 결코 자연에 대립되는 인공의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유전자를 선택해 점점 더 우수한 형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과정이며, 자신들은 단지 자연이 이미 하는 그 일을 그저 조금 가속시킬 뿐이라는 것.

물론 이런 고약한 상상력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준'의 문제다. 지성이나 덕성이나 아름다움과 같은 것의 속성이 과연 누구나 합의하는 인간의 객관적 성질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성, 덕성, 아름다움(진선미)은 '문화적 가치'의 영역에 속한다.

⇒ 유전자를 통한 형질 개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겠다는 차라투스트라티의 기획은 진선미라는 가치의 문제를 마치 과학적인 기술의 조작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사실인양 착각한다.